

■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 “확진자 증가하면 단계 격상 검토”

## 5인 이상 모임도 계속 금지... 이번주 특별방역 관리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최근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는 만큼 확진자 증가 시 단계 격상을 검토할 방침이며 오는 12~18일을 '특별 방역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해 대대적인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내달 2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러나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지체 없이 단계 격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14명(4월 2~8일, 15명 발생)으로 현재 2단계 수준에는 미달하나, 전주 1.5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3월 입도 관광객 수는 작년보다 83% 증가한 88만4000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코로나 이전(2019년 3월 115만9000명)의 76% 수준까지 회복됐다. 또 이달 들어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 19명 중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유입 등으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거리두기 1.5단계 유지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조치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

특히 제주도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도민사회의 방역수칙 강도가 높아져 감염 확산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 도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주일을 '특별 방역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 및 기타 관리시설 34곳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제주도는 사업장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묵인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출입자 관리에 대한 점검 단속에 나선다.

사업장에서는 이용자가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불가피할 경우 수기명부)를 인증하도록 확인해야 하며, 수기명부를 쓸 때 역시 '대표자 외 몇 명'식의 방식은 금지되고 모든 방문자가 작성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한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강대해기자

## 기숙형 대안학교 236명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기숙형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종사자 등 236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국내 일부 지역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8일부터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중 기숙형 대안학교로 운영되는 3개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 점검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명단 기록·관리,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특히 도는 각 시설 최소 50명에서 많게는 100명의 인원이 거주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학생 190명과 교사 및 종사자 46명 등 23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다행히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현장점검 시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유채밭과 관광객 10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거리 유채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제주의 봄을 만끽하고 있다. 강해만기자

## “답답해서”... 50대 자가격리 무단이탈

### 두차례 이탈해 경찰 출동 방역당국 “고발조치 방침”

제주지역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A씨가 2차례나 무단이탈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격리자는 도방역당국에 의해 고발조치될 방침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A(53)씨는 지난 6일 광주시 확진자

의 접촉자로 분류돼 관찰 보건소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이날 주거지를 이탈한 후 지인을 만나러 갔다. 이후 A씨가 자가격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112로 신고, 경찰의 인솔에 따라 자가격리지로 돌아갔다.

제주도는 A씨에게 안심밴드를 걸고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지만 이튿날인 7일 휴대전화와 안심밴

드 부착 규정을 무시한 채 재차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했다.

이후 경찰은 제주도로부터 A씨에 대한 신병 확보를 요청받아 차량 수배 끝에 지난 8일 서귀포시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방역당국에 “답답해서” 등의 이유로 자가격리지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A씨를 제주도인 재개발원에 시설 격리조치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과 관련해 38건을 적발했으며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강대해기자

## “감당할수 없는 도움... 너무 감사”

제주대 입구 4중추돌사고 피해자 부친 헌혈 호소  
제주대 학생·도민들 발길 긴급수술 필요 혈액 확보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트럭-버스 4중 추돌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가 도민들의 헌혈로 위기를 넘겼다.

지난 6일 오후 5시59분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5t트럭이 1t트럭과 버스 2대를 잇따라 추돌해 3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김모(21·여)씨가 심장지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심폐소생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맥박이 돌아왔지만 긴급수술로 인해 혈액이 부족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피해자 김씨는 현재 제주시 소재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긴급수술을 받고 출혈이 지속돼 AB형 RH+ 혈액이 부족해졌다.

김씨의 아버지는 SNS를 통해 “딸의 혈액형은 AB형(RH+)이다. 도움을 주실 분은 가까운 헌혈의 집에 방문해 '제주대 사거리 교통사고 환자 김씨' 앞으로 지정 헌혈을 부탁드립니다”며 “피가 많이 모자란 상황이다. 엄치불고하고 도움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이 호소문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산됐다. 이 소식을 접한 도민과 제주대 학생들은 너도나도 지정헌혈을 위해 모여들었다. 김씨 아버지는 SNS에 게시물을 통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도움을 받아버렸다”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걱정이 앞설 정도”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민기기자



9일 헌혈의집 한라센터에 대학생들이 찾아와 지정헌혈을 하고 있다.

긴급한 연락을 통해 사정을 들었다. 졸업생으로서 돕기 위해 헌혈에 참가했다”며 “오랜 기다림에도 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에서 이름 모를 학생들이 아버지가 올린 페이스북 호소문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고, 호소문 내 댓글도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제주대 총학생회도 적십자사와 협조를 통해 오는 14일 제주대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 헌혈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적십자사에 따르면 도내 헌혈의 집에서 지정헌혈에 참여한 인원은 지난 8일 오후 7시 기준 107명으로, 혈액 4만2800ml가 모여 긴급수술에 필요한 혈액의 양이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아버지는 SNS에 게시물을 통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도움을 받아버렸다”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걱정이 앞설 정도”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민기기자

## 오늘 강풍 동반 30~80mm 봄비 내린다

봄을 질투하는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다.

11일 제주지방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2일 새벽부터 13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다”며 “특히 12일 오후부터 밤 사이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비 피해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예보했다.

비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지와 남·동부(남원·표선·성산읍)에 집중

적으로 내리겠고, 상대적으로 북·서부 해안지역(한림·애월읍·제주시)은 강수량이 적어 한라산 남쪽과 북쪽의 편차가 크겠다. 예상 강수량은 12일 오전 9시까지 30~80mm(산지 200mm 이상)이며, 제주 북·서부 해안 및 추자도는 10~50mm다.

아울러 12일 오전부터 13일 아침 사이 바람이 평균풍속 초속 8~16m,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강풍 피해에도 주의해야겠다. 송은범기자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개원 22주년 한마음병원**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 건강과 행복을 가꾸는 병원

**한마음병원은**  
행복한 환자, 행복한 직원, 행복한 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마음병원**  
www.hanmaeum.jeju.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52(이도이동)  
 ■ 대표전화 064)750-9000 ■ 진료예약 064)750-9100 ■ 응급실 064)750-9119